

# 2024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

## 심 사 평

###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속초 문화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발전을 위한 예술활동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체 역량에 맞는 좀더 구체적이고 사업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지역 연계성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항목에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항목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느껴진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안주하지 말고,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문화예술의 창작 단체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지원 단체들이 지역의 소재와 현안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한 부분들이 돋보였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충실히 활용하면서도 사업의 질적인 부분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원금액으로 만족한 결과를 지원하신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신청서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뿐 아니라 예산편성까지 논의와 협의를 거쳐 꼼꼼하게 검토하여 지원 대상 단체들의 지원 예산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제외된 단체도 사업 역량이 부족함이 있어서라 아님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선정 단체는 사업 진행함에 있어 계획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속초 문화예술단체의 역량과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2024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

## 심 사 평

[문화예술인지원사업]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지원사업 응모가 들어왔음. 특히 시각분야 응모가 많았음. 각 장르별로 지원예산이 고루 배분되도록 심사에 임했으나 아쉽게 지원예산 선정에서 배제되는 문화예술인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에 선정됐던 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전체적으로 기존 선정 문화예술인들과 신진작가들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문화예술인지원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던 분야의 작가들이 응모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금번 문화예술인지원사업 예산 지원이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창작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24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

## 심 사 평

### [생활예술지원사업]

생활예술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서에 기입된 사업목적과 세부계획, 예산편성 계획 등을 기본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참여와 문화향유권 증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적인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지거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이 부족했음이 아쉬운 부분이며, 특정 장르의 신청이 편중된 점, 그리고 단체의 고유한 색깔이나 차별성이 드러나는 기획이 없었음도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원들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 1년 내내 속초가 문화예술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많은 단체에게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비록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해당 단체의 활동이 자생하여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재단 이하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24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

## 심 사 평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24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단체들의 특징은 사업 장소(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어울리는 컨셉이 돋보이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장르 역시 인형극과 연극 등 교육 선도적인 목적이 있는 팀들과 코로나 이후 정제되어 있는 사회분위기를 환기 시키는 공연들도 있었습니다.

단독기획 공연 이력과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안정된 경력 그리고 차별화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작품들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